

<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>

마가복음 11:6-10 / 새찬송가 94 (통일 102)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

1.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

하나님은 그 절대주권으로 모든 영적 세계와 온 우주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을 지으셨고 다스리십니다(시103:19), (엡4:6).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과 크신 뜻을 우리는 절대 헤아릴 수 없습니다(롬11:33), (롬11:36).

2. 예수님은 나 자신의 존재와 내 인생의 주님도 되십니다

하나님은 그 왕권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이십니다. 그리고 내 존재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.

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.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죄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.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교만한 선택입니다. 설령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병, 문제, 죽음과 같은 한계상황을 만날 때는 진짜 자기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마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처럼 말입니다(눅23:41-43).

결국 신앙생활이란 내가 나의 주권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모시는 것입니다(시100:3).

3.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십니다

놀랍게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은 섬겨주심으로 나를 다스리십니다(마20:28).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고,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스스로 39대의 채찍에 맞으셨고, 저주에서 구원하시고자 스스로 나무에 매달리셨고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(갈3:13).

이처럼 예수님은 힘과 권위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심으로 다스리십니다. 이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(막11:7-9).

4.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주님의 섬기심을 받고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

이런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합니다. 그때 주님은 아주 섬세하시고 부지런히 우리 인생을 이끄십니다.

나아가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(롬12:11). 이를 위해 우리는 “무엇이 주를 섬기는 일인가?” 라는 질문을 갖고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주님께 여쭙봐야 합니다.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선교하려고 할 때 그러했습니다(행13:1-3). 바울도 주를 선교하려고 할 때 2차 선교여행 중에서 뜻밖의 난관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였습니다(행16:6-10).

결국 우리의 고민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병자를 고치고 성전을 건축하고 교회의 부흥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(행17:24,25).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 할 때 주님은 우리를 계속 섬겨주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을 계속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은 계속 우리를 섬겨주십니다.

<적용&실천>

우리는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습니까? 나의 문제와 질병을 앞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섬기는 일을 앞서 고민하고 있습니까? 주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.